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07/23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여론조사

올해 3월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가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 실린 시조새 등 진화론 관련 내용을 삭제 혹은 수정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면서 인류의 기원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다. 일부 언론에서 “과학교과서에서 진화론의 증거로 서술된 시조새 내용이 삭제된다”는 보도를 내놓자, 과학계는 즉각 시조새 관련 내용의 삭제를 반대하는 청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한국갤럽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둘러싼 인류의 기원,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서 시조새 내용의 삭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613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7월 13, 16일(2일간)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pm 4.0\%$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18%
8.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인류의 기원 ‘진화론’ 45% > ‘창조론’ 32%…… 진화론 지지자 증가
- 고등학교 과학교과서 시조새 내용의 삭제 여부
‘계속 실려야 한다’ 42% > ‘삭제돼야 한다’ 19%…… ‘모름/의견없음’ 39%

**‘진화론’ 믿는다 45%, ‘창조론’(32%)보다 13%포인트 더 많아…… 10 년 사이 진화론 신봉자 증가
개신교 신자 75%, 천주교 신자 42% ‘창조론’ 믿어**

한국갤럽이 지난 7 월 13, 16 일 2 일간 전국 만 19 세 이상 남녀 613 명에게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인간은 다른 생물 중에서 진화했다’는 응답이 45%로 ‘인간은 신의 의해 창조됐다’는 응답(32%)보다 13%포인트 더 많았다. ‘창조론’과 ‘진화론’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모름/의견없음)는 23%였다.

2001 년 동일한 조사에서는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됐다’는 견해가 36%로 ‘인간은 다른 종으로부터 진화했다’(29%)보다 7%포인트 많아 창조론이 우세했다. 지난 10 여 년 동안 진화론을 믿는 응답자는 16%포인트(29%→45%) 늘어난 반면, 창조론을 믿는 응답자는 큰 변화가 없는 것(36%→32%)으로 조사됐다.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은 인류의 기원으로 ‘창조론’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개신교 신자(133 명)의 75%, 천주교 신자(65 명)의 42%가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됐다’고 응답해 개신교 신자의 ‘창조론’에 대한 견해가 더 강했다. 반면 ‘인간이 다른 생물 중에서 진화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개신교 신자의 14%, 천주교 신자의 31%가 응답해, 천주교 신자가 ‘진화론’에 대해 더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불교 신자(131 명 중 46%)와 종교가 없는 사람(278 명 중 63%) 중에서는 ‘진화론’이 더 우세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진화론’ 51%, ‘창조론’ 26%로 ‘진화론’을 꼽은 경우가 더 많았으나, 여성은 ‘창조론’ 37%, ‘진화론’ 40%로 두 견해가 비슷했다. 남성보다 여성 중에 기독교(개신교 또는 천주교) 신자가 많은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일수록 진화론을 믿는 경우가 많아 20 대는 63%, 30 대는 55%, 40 대는 48%로 ‘진화론’이 우세한 반면 60 세 이상은 ‘창조론’(30%) 응답이 더 많았다. 50 대는 ‘창조론’(38%)과 ‘진화론’(41%) 주장으로 양분됐다.

• 인류의 기원: 창조론 vs. 진화론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창조론	진화론	모름/의견없음
전체		613	32	45	23
성별	남성	303	26	51	23
	여성	310	37	40	23
연령별	19~29세	114	30	63	7
	30대	126	31	55	14
	40대	135	30	48	22
	50대	115	38	41	22
	60세 이상	123	30	21	49
주요 종교별	불교	131	16	46	37
	개신교	133	75	14	11
	천주교	65	42	31	27
	종교 없음	278	17	63	20

(질문) 선생님께서는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다른 생물 중에서 진화돼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교과서에 시조새 ‘계속 실려야 한다’ 42%, ‘삭제돼야 한다’ 19%…… ‘모름/의견없음’ 39%
개신교(삭제돼야 31%)와 천주교(실려야 42%) 신자들 생각 달라**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 진화론의 근거로 시조새 내용이 ‘계속 실려야 한다’는 주장이 42%로 ‘삭제돼야 한다’(19%)보다 우세했다. ‘모름/의견없음’도 39%로 적지 않았다.

시조새 관련 내용이 ‘계속 실려야 한다’는 견해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앞섰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계속 실려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과학계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았다.

불교(42%)와 천주교(42%) 신자, 종교가 없는 사람(47%)은 과학교과서에 시조새가 ‘계속 실려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이와 달리 개신교 신자는 ‘계속 실려야 한다’(30%)와 ‘삭제돼야 한다’(31%)는 두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 과학교과서 시조새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명)	계속 실려야 한다	삭제돼야 한다	모름/의견없음
전체		613	42	19	39
성별	남성	303	46	18	36
	여성	310	38	19	43
연령별	19~29세	114	55	20	25
	30대	126	56	14	31
	40대	135	43	23	35
	50대	115	33	24	42
	60세 이상	123	21	15	64
인류의 기원	창조론	196	33	29	38
	진화론	278	57	14	29
	모름/의견없음	139	25	14	61
주요 종교별	불교	131	42	14	44
	개신교	133	30	31	39
	천주교	65	42	13	45
	종교 없음	278	47	17	36

(질문) 현행 교과서에는 시조새가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해가는 중간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는 ‘시조새가 진화론의 증거가 될 수 없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과학교과서에서 시조새의 내용이 계속 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삭제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